

정책이해! 상호소통! 행복 힐링!

인천교육연수원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

인천시교육연수원(원장 박정희)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교육전문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연수장소인 인천교육연수원 외국어교육부 시설을 이용해 1박 2일간 총 2회로 진행했으며,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지면을 위해 교육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책 이해, 소통 역량 강화, 협과 화

복의 힐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과정으로 편성하여 인천교육전문직원의 참여 열기로 가득 채웠다.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글로벌 교육 특과와 인천교육 이야기를 시작으로,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직의 고민과 현장 지원방법에 대해 멘토 교감들과 협의를 실시했고, 전문직 학습공동체를 조직하고 함께 독서토론 등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는 활동을 진행했

다. 2일자 아침에는 해설가와 함께 하는 스타라피 활동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오후에는 행복한 전문직으로 삼에 대한 토의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심순아 장학사는 "교육청에서 바쁜 일정 중에 연수에 참여했는데 정책뿐만 아니라 소통과 나눔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하였고, 연구사 김태인은 "전문직도 학습공동체가 필

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책을 통한 교육이어나는 시간을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다질 수 있어서 의미있는 연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희 인천교육연수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자신의 업무 중심으로 사고했던 전문직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서로 더욱 가까워져서 협업할 수 있는 공동체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문직원 연수의 의의를 피력했다.

인천총 기자 as@



인천초은중, 함께 하는 교내 가을 교정 음악회

인천초은중학교(교장 이기열)는 10월 26일 점심시간에 교정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교내 가을 교정 음악회'를 실시했다.

연주곡은 '플라잉', '브라스 할라리루곡', '언제나 몇 번이라도'였는데 관객들의 요청으로 스타라코피티 왈츠 2번 등을 추가로 연주해 큰 반응을 얻었다.

교내에 울려 퍼지는 클래식음악 연주 소리에 교내의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하는 음악회였으며 15분간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이었다.

인천총 기자 as@

초은 오케스트라는 자유통터 및 정규동아리 활동으로 서구청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받아 많은 교내의 연주 활동(서구청 마실거리 연주, 서구청 수련관연주)을 하며, 서구 동아리 페스티벌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면서 많은 음악적 발전을 했다.

이번 교내 가을 음악회 통해 실내 소규모 공연도 계획 중이며, 앞으로는 이런 음악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감성이 풍부해지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인천총 기자 as@



서초구, 30년 된 문화예술공원 재정비 실시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양재동 200번지 일대 문화예술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문화가 있는 숲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비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서울시로부터 시비 5억 원을 지원받아 화장실 환경개선, 메타세쿼이아길 데크로드 설치, 다목적 문화마당, 이팝나무 숲길, 감각마당 조성 등의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타세쿼이아 길에 뿌리가 노출되어 보행이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데크로드를 설치해 보행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사색할 수 있는 의자를 함께 설치해 명소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야외무대를 철거하고 잔디광장으로 다목적 문화공간을 조성해 놀이, 운동, 행사, 휴식, 자연학습 등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꽃 하얗게 꽃이 피는 이팝나무를 활용한 산책로와 야외테이블이 설치된 숲길을 조성해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집어서 먹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하도록 했다.

화장실 개선에는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배리어 쇼어변기, 비상벨도 함께 설치한다.

구가 이번엔 문화예술공원 재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연평균 2만여 명의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임에도 조성된 지 30년이 되어 시설물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야외무대는 구조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사용이 중단되는 등 시설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문화예술공원의 재정비에 필요성을 인식해 시에서 진행 중인 기본계획영역의 내용을 반영하여 선도적으로 재정비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또 설계역역 단계부터 다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 전문가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공동행복위원회'를 개최해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등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천총 기자 as@

내가 가진 모든 꿈과 끼를 발산하다

명현중, 제 15회 명현제 개최

명현중학교(교장 김기택)는 제15회 명현제를 개최했다. 학생들이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활동을 전시하고,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며, 운영하는 학생, 참여하는 학생 모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어울림 마당에서는 도서관 문화재, 스포트웨어 놀이터, 드림극을 티셔츠 만들기를 자신의 진로와 관련 된 부스운영 뿐 아

니라, 화반어이스크림 만들기, 풍선아트, 딱지치기 등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체험마당 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사회전, 미술전, 오곡보존 작문전 등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만든 작품들로 전시회도 꾸기고, 난타, 댄스, 랩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무대의 우쿨렐레 합주, 밴드 등 교사들도 참여하는 무대를 꾸몄다.

전체진 운영위원장은 "행복 배움 학교가 되면서 작년보다 학생들이 더 행복해 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었

다"라며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것에 매우 만족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회장 3학년 최재광 학생은 "준비하는 것이 많아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재미있게 참여하는 것을 보니 뿌듯했다"고 말했다.

명현제 준비로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준비했던 동아리 학생들, 그리고 공연마당 준비 학생들, 그리고 관람했던 학생들 모두 다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과 끼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인천총 기자 as@

인천 부평구, 희망플러스 멘토링 문화체험 활동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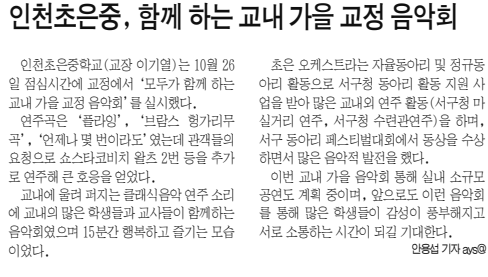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 30일 희망플러스 멘토링 하반기 문화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통합사례관리 가구 자녀 8명, 성인 자원봉사자 7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테라피실에서 뮤지컬 '비밥'을 관람하는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는 문화체험 기회가 많지 않은 저소득 계층 자녀 8명에게 공연 관람을 지원, 또래 아동들과 문화 격차를 줄이고 멘토-멘티 간 친밀감을 유지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멘토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뮤지컬 '비밥'은 개성 넘치는 두 마스터 셰프가 경쟁하며 최고의 음식을 선보이는 좁기리틀 비스트와 비보의 댄스를 통해 다이나믹하게 풀어내 멘토와 멘티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뮤지컬 관람을 통해 멘티 학생들의 자발성, 감수성과 창의력을 높이고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총 기자 as@



만수중 '2017 고입 진학 설명회' 개최

만수중학교(교장 김숙애)는 10월 26일 17시부터 진로진학학과 각 반 교실에서 '2017학년도 고입 진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 진학과 관련된 대화기초공업고등학교 박근영 교사의 특강과 고등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로 시작해 3학년 부장 이진아 교사의 연수로 이어졌다.

연수는 입학 전형의 원리 방법, 내신 성적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천총 기자 as@

산출 방법,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전형 세부 일정,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 추기고등학교 전형,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자주 묻는 질문은 등 내용으로 5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이뤄졌다.

전체 설명회 후,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살로 이용해 답답하고 개인 면담 시간을 가져 진학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상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총 기자 as@

내 생명도 소중하고, 타인 생명도 소중하고

인천백운초, 전 교직원 대상 생명존중 연수 실시

인천백운초등학교(교장 황돈희)는 지난 10월 26일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연수를 과목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초등학생 및 청소년의 자살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북부교육지원청 Wee센터의 최유림 강사를 초청해 자살 위기의 발견과 감지법, 자살 의심학생 질문법과 응급 대처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자살충동 학생을 위한 주변 전문가간 정보도 같이 제공했다.

이전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자살 관련 징후 및 위기대응 방법, 학생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무엇보다 부담스럽지 않았던 자살학생 관련 학생지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다시 한 번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담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을 면밀히 살펴봐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돈희 교장은 "인천백운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생명존중 의식을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생명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활지도, 상담활동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인천총 기자 as@

이전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자살 관련 징후 및 위기대응 방법, 학생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무엇보다 부담스럽지 않았던 자살학생 관련 학생지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다시 한 번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담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을 면밀히 살펴봐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돈희 교장은 "인천백운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생명존중 의식을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생명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활지도, 상담활동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인천총 기자 as@

여주박물관, '궁중의 맏시·전통매듭' 특별기획전 개최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여주박물관에서 10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궁중의 맏시, 전통매듭'이라는 제목으로 기획전시실에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이수자인 박양자 선생의 작품 100여 점을 전시한다.

우리나라에서 매듭은 문헌상의 기록이나 유물로는 배우기 어려운 사람들의 손끝에서 손끝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왕실의 예(禮)를 상징하는 궁궐의 장엄 장식과 약기 장식, 궁중과 상류 사회의 의복 장식과 실내 장식, 사찰의 보개(寶蓋)와 번

(幡) 장식에 사용된 다양한 전통매듭을 재현해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여주시박물관 관계자는 "한 울 한 울 명주 실에 물을 들이고 끈을 짜고 술을 비벼고 매듭을 맺기까지 혼과 열정을 담아 완성한 전통매듭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 여주박물관은 2016년 7월 14일 신관(여마관)을 개관해 '여주-여강이 보이는 풍경', '여름, 그리고 민화', '박물관, 미술을 품다', '이것저것 차이 없이' 등 끊임없이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여주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 휴관이다.

인천총 기자 as@

낙지요리전문점

행복한 낙지

3가지 맛으로 골라드세요!!!

1. 화끈하게 매운맛
2. 감칠맛나게 거부맛
3. 순하게 안배맛

음식은 건강의 시작
저희는 좋은재료와 정성으로

가족모임 단체모임 회식회식

본점
인천시 연수구 정방로 171, 1층 (옥련동) 흑현초교 청문삼
예약문의 (032)834-7740 단석식 및 대형주차장비

낙지요리전문점

1,000원부터

행복한 낙지

산낙지전골, 산낙지찜, 산낙지전골, 산낙지찜

※모든 메뉴 포장

막걸리에 파천도 준비되었습니다

834-7740